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민관 합동 환경정화 행사 개최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26.05.28

포천시청, 특수임무유공자회, 지역주민 등 130여명 참여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는 특수임무유공자회,지역주민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화활동을 마치고 기념촬영을하고있다.



[연천=백호현 대표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가 쾌적하고 깨끗한 수변경관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손을 잡고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에 나선다.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지사장 하신혜)는 28일 포천시 소흘읍에 위치한 고모저수지에서 포천시 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회, 마을주민과 함께 '고모저수지 합동 환경정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가 관리하는 고모저수지를 대상으로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아름다운 수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관 중심의 활동을 넘어 지역 유관기관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민·관합동'형태로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정화 활동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 임직원 20명을 비롯해 포천시청 관계자 10명, 특수임무유공자회 포천시지회 회원 70명, 인근 지역주민 30명 등 총13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고모저수지 둘레길과 주변 수변 구역에 버려진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하였다. 이와 함께 저수지를 찾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계도 캠페인 활동도 함께 전개했다.

하신혜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 지사장은 "이번 합동 환경 정화 행사는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소중한 수자원과 환경을 지키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저수지를 만들고, 지역민과 상생하는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동두천.연천신문